

수입차, ‘효율 전쟁’ 본격화 연비·유지비 중심 소비 확산

전기·하이브리드 판매 급증세 지속
벤츠·BMW 밀리고 친환경차 부상
30~40대 중심 새 수입차 트렌드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체 판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판매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연비·유지비 같은 ‘효율’이 차량 선택의 최우선으로 자리 잡으면서 실속형·친환경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약 22만5202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는 11만3439대, 전기차는 5만6552대로 친환경차 비중이 무려 75.5%에 달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하이브리드 7653대 전기차 821대 ▲2월 하이브리드 1만3013대, 전기차 3757대 ▲3월 하이브리드 1만5643대 전기차 5658대 ▲4월 하이브리드 1만3691대 전기차 3712대 ▲5월 하이브리드 1만5027대 전기차 9533대 ▲6월 하이브리드 1만4916대 전기차 9125대 ▲7월 하이브리드 1만3469대 전기차 10만193대 ▲8월 하이브리드 1만3442대 전기차 10만855대 ▲9월 하이브리드 1만6585대 전기차 12만898대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합리성’이다.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와 BYD가 가격 인하 정책으로 소비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고, 충전 인프라까지 확충되면서 실사용 불편이 줄어들었다.

또한 유지비 절감, 각종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며 ‘전기차는 비싸다’는 인식이



올해 수입차 시장은 전기차·하이브리드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판도 변화가 뚜렷하다. /뉴시스

빠르게 희석됐다.

실제 BYD 소형 SUV 아토3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2000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역시 5000만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어 중형 세단급 소비자까지 흡수했다.

하이브리드는 ‘충전 스트레스’를 피하면서도 연비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렉서스 ‘ES 300h’와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정통강자들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고 혼다·볼보 등도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시장공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수입차 시장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과거 벤츠·BMW 중심의 고급 세단이 시장의 주류였다면, 이제는 전기차·하이브리드 중심의 효율형 소비가 주도권을 쥐는 구도로 재편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층 변화도 눈에 띈다. 테슬라·BYD 구매자의 절반 이상은 30~40대로 과거 수입차 시장 주 고객이던 50대 이상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유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연비·유지비·효율이 차량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시형 소비보다 실속형·친환경 소비 증가도 기여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더 이상 일부 소비자의 선택지가 아니라 시장의 중심이 됐다”며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70%를 넘긴 만큼 향후 브랜드별 라인업과 가격 정책에서도 ‘효율 중심’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을 기점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 향후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LG전자, 3분기 실적 선방 전장사업 수익성 ‘역대 최고’

관세 부담 속도 본업 견조
가전·전장 중심 수익 방어
인도 시장 추진, 체질 강화

LG전자가 대미 관세 부담 본격화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서도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LG전자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1조 8751억원, 영업이익 6889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이는 역대 3분기 중 2번째로 높은 매출액이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7.7% 상승했다.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관세 부담,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만 50세 이상이거나 수년간 성과가 낮은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 희망퇴직 등 비경상 요인이 전년 동기 대비 전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쳤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에도 생활가전사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를 공고히 유지했고, 전장이 역대 최고 수준 수익성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력사업과 미래사업이 고르게 선전해 시장 우려를 상쇄, 기대치를 뛰어넘는 경영실적에 기여했다.

LG전자는 ▲전장, 냉난방공조 등 B2B ▲가전구동, webOS 등 Non-HW

▲온라인 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질적 성장’ 영역에 집중하며 사업의 펀더멘털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달 인도법인 상장을 계기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계획중인 만큼 사업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업 부문별로는 먼저 생활가전 사업은 미국 수출물량의 관세 부담,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 중이다. 볼륨존 영역에서도 안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인식했다. 사업 관점에서는 TV 판매경쟁 심화로 마케팅비가 증가했다. LG전자는 웹OS 플랫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수익구조 다변화에 집중한다.

전장 사업은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가 수익성에 크게 기여했다.

냉난방공조 사업은 상업용 공조시스템 및 산업·발전용 칠러를 앞세운 미래 사업기회 확보에 매진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엔솔, 美 구금직원 복귀… 정상화 착수

구금 사태 한달 만 인력 재투입
현지 공장 가동 재개 준비 돌입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건설 중인 배터리 합작공장 ‘HL-GA 배터리회사’에 필수 인력을 다시 투입하며 현지 사업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귀국한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사 직원들이 한 달여간의 유급휴가를 마치고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복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장의향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파견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LG CNS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협력사 역시 각 사의 지침에 따라

출장 인력을 선별적으로 재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4일 조지아주 합작공장장에서 자사 직원 47명과 협력사 인원 25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되자 미국 내 모든 출장을 즉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직원들은 8일 만에 귀국했으며, 회사는 전원에게 추석 연휴 종료 시점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건강검진·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이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단기 상용(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미국 공장장에서 장비 설치나 점검, 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공식 확인되면서 출장 재개가 가능해졌다.

/원관희 기자

한화, 美 육군 현대화 사업 진입 시동… K9A2 첫 공개

AUSA서 차세대 자주포 공개
자동장전 8×8 차륜형 플랫폼
155mm 모듈형 장약 현지화

한화가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에서 미 육군 현대화 사업을 겨냥한 차세대 자주포와 탄약 생산 솔루션을 공개하며 K-방산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AUSA 2025’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15일까지 열리는 AUSA는 미 육군 협회(Association of the U.S. Army)가 주관하는 북미 최대 지상방산 전시회로 올해는 92개국에서 약 4만4000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한화는 279㎡ 규모의 대형 부스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맞춘 차륜형 K9A2를 선보인다. K9A2는 2022년 방위사업청과 체계개발 착수 이후 최종 성능검증 중인 최신 궤도형 자주포로 자동화된 탄약제작·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분당 최대 발사속



한화의 부스 전경.

/한화

도도 기존 6발에서 9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모듈형 추진장약(MCS)의 현지화 협력 방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화 MCS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기반 자동화 생산을 통해 품질 일관성과 생산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규격의 155mm 포탄과 높은 호환성 및 발사 압력·사거리의 정밀 제어로 안전

성과 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한화시스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단거리 소형 AESA 레이더와 안티드론 등 미 국토안보 분야에 특화된 ‘다계층복합방호체계’를 선보인다. 해당 체계는 현대 전장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는 무인기·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체계로 공중 위협의 ‘탐지·식별·무력화’ 과정을 통합 운용해 미국 국경의 감시 경계 체계에 적용 가능하다.

단거리 AESA 레이더는 저고도 공중 위협체의 탐지·추적을 통해 단거리 방공무기체계(SHORAD: Short Range Air Defense)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센서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정부와 함께 개발 중인 K9의 차세대 모델인 A2를 기반으로 미 육군에 최적의 자주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화도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과 경제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